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한 분석과 후속 작업들이 한창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고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의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북미가 진정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 카드가 분명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꺼내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교환 방식이 아니라고서는 핵 프로그램 모두를 꺼내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차이는 지난 30년 북핵 협상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 세기의 담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대북 강경론을 경계한다

의 과정과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실패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 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어느 누구도 이번 회담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북한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보다는 양 정상 간의 건설적인 논의에 맞춰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변함없으며 대화를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축소되었고 북한도 핵 능력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과거에도 협상이 실패하면 늘 핵 포기 불거론, 협상 무용론, 선 핵 포기론 등이 자리를 잡았다. 실패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이 이뤄진 것처럼 다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규정하기에 앞서 냉정하게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고 더 좋은 합의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다. 파이가 같은 비율로 나눠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협상 당사자 모두가 그 결과에 만족하면 협상은 '잘 된' 것이다. 또한 양측이 파이의 배분에 있어 문제가 생기

면 협상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협상의 파이가 작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협상 당사자 간 협상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협상은 현재 이번 북미 회담의 논의 구조를 넘어 파이를 키우는 협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최대한 파이를 키워 모든 핵 프로그램과 대북 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고 신속히 동시 병행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을 두고 톱다운(Top-down)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사실 이번 협상은 톱다운과 실무 협상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다만 최고 지도자들의 결정 부담을 덜고 합의 없이 종료되지 않도록 다음번 협상에서는 대부분의 사항이 타결된 이후 정상 회담 일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양측이 파이가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판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유도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심판은 한쪽이 소극적으로 공격을 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양측의 살비가 혈령해지면 타이트하게 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를 포함한 경제 보상이 북핵 협상의 핵심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밑바탕을 우

리가 조성해야 한다. 지난 스웨덴의 사례처럼 남·북·미 3자 실무협약체가 지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무협의 결과가 남·북·미 정상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재개를 본격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의 현장 확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비록 제재의 프레임워크에 속해 있지만 또한 남북 관계 차원의 사안이기도 하다. 비핵화 협상에 이 문제들이 연동되어 버리면 남북 관계 차원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분리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신속히 유도하고 우리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소통도 중요하다. 중국 또한 이번 북미 회담이 협상 없이 종료된 데 대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중국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는 만큼 전략적 소통을 통해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는 방법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처럼 뿌연 한반도 정세이지만 우리가 이번 회담 결과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이해관계를 벗어나려면



황성호  
영남 신복성당 주임신부

우리는 요즘 언론을 통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것일까? 그런데 청년들의 실업 소식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신입 사원 대부분이 채용 비리로 드러난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공공기업의 채용에 있어서 청탁과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청년 실업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재인식했다. 판피아, 낙하산, 친인척, 지인, 압력, 부당 지시, 청탁, 알선 등의 관계들이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채용 비리들이 우

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최근 손해원의원의 목포 구도심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건물 매입'과 관련해 회자되는 '이해관계와 그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말에서 우리 사회의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관계는 서로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에서 단지 이익과 손해의 입장에서만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직면하기 쉬운 직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찰, 변호사, 판사, 손해사정인, 정치가, 기술자, 경영진, 화사, 임원, 의학 분야의 과학자, 작가, 편집자 등이다. 그런데 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어떤 한계에 있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 이해관계의 충돌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 사회를 불공정의 각축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공공기관의 취업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한 청년들의 정당한 실력이 기관의 임직원이나 친인척 또는 측근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점수를 조작하거나 모집 공고를 위반하는 등 특정인을 선발

하기 위해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다수다.

어느 한 공공기관 채용 업무 담당자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를 하향 조정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니 참담할 뿐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이해관계는 물론 특권의식과 기득권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성실한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7년 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작년 말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2018년 1월 시행령이 보완 수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해관계를 통한 부정 청탁과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했고, 미국은 영변 핵 실험장의 해체로만 만족하지 못해 합의가 불발되었던 것이다. 이 북미 정상 협

상의 결렬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내 삶의 자리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국가 정상 간의 관계까지 언제나 이해관계는 작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익과 손해의 시각을 벗어나 관계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예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없었다. 그 대신 예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용서와 일치를 이루셨다. 예수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라고 말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공경하고 신한 관계성이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 기회 균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적폐 청산을 외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성과 습성들이 이미 이해관계라는 족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면 어떨까? 이 노력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오로지 이익과 손해라면,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기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만의 매력을 선보이자



이언우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봄바람이 분다. 움츠렸던 대지에 희망의 씨앗이 돌아나며 새 시대를 맞이한다. 광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평화의 물결 따라 넘실넘실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다. 평화의 파도는 바로 이 곳 빛고를 광주에서 퍼져간다. 바로 올해 열리는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그것이다. 각 나라의 국가 대표들이 경쟁을 펼치는 선수권대회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대회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펼쳐지며 전 세계에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오픈 워터, 하이드리빙 등 6개 종목이 열리며, 참가 규모가 200

여 개 국 1만 5000여 명이 이르는 대형 국제 행사다.

특히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북한 대표팀의 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남북이 함께 물살을 가르며 통일을 향한 화합과 희망의 축제를 펼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수영선수권대회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이자,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우리 광주에 집중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제 스포츠 행사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도시 마케팅의 촉진제가 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주는 선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한 차원 상승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광주는 그간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 등 수준 높은 콘텐트로 문화 중심 도시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에 더 해

진한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의미를 통해 명실공히 국제 문화 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 광주가 지니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할뿐 아니라, 광주만의 매력을 세계에 공개하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다.

이에 맞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아름다운 광주 이미지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모든 역사와 시설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외국어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손님맞이 체비에 나섰다. 특히 KTX 등 손님맞이 체비에 나섰다. 특히 KTX 등 손님맞이 체비에 나섰다. 특히 KTX 등 손님맞이 체비에 나섰다.

도시철도 광주송정역의 경우 LED 안내 표지판과 픽도그램 등을 정비해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한 눈에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듬었다. 또한 국철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통로 벽면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형 광고물을 설치해 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앞

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남광주역, 문화전당역, 상무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광주만의 유일한 매력, 세계를 향한 광주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공사는 앞으로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캐리커의 역사 순회 이벤트, 릴레이 명예역장, SNS 이벤트 등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 대회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한류문화를 선보이는 지하철 예술무대를 집중 운영,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알리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평화의 물결 속에 경계를 넘는 것은 선수들의 기록만이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의 한계도 가뿐히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주자. 이번 대회는 인류의 동질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세계 평화의 장이자 희망·예향·미향으로서의 광주다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다. 성공의 관건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역사상 최고의 대회로 기록되도록 광주의 힘을 모으자. 광주도시철도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

社說

쌍여만 가는 핵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영광 한빛원전 등에 쌓이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혹은 타고 남은 폐연료봉 등)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116개 시민사회 단체는 엇그제 선언문을 발표하고 "쏟아져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짓는 대신, 국민이 납득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사용 후에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 등이 10년 이상 배출되는 고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시민 단체들은 완전 격리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40년 가까이 폐연료봉 등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한빛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저장소 시설이 비좁아 폐연료봉을 뿔뿔하게 채워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빛원전(1~6호기)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은 6302다발(2626t, 2018년 12월 기준)로 2026

년께 저장 용량(9017다발·3848t)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폐연료봉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된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원전 내 임시 저장 공간에 있던 폐연료봉이 심각한 환경 재앙을 불러왔지만 정부 입장에서 핵폐기물을 원전에서 영구 격리해 저장할 부지 확보는 물론 시설 건립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6년에는 한빛원전 부지에 별도 저장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줄속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렇다면 야당 한빛원전 등지에 위험을 차곡차곡 쌓아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의 사례가 증명하듯 원전 사고는 한번 터지면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이 공감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 마스크 배포한 '따뜻한 행정'

미세먼지 뉴스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공공 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배출가스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도 없고 측정 장비도 부실해 사실상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다 보니 사·도민들은 미세먼지를 피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가능한 생의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은 기본이 됐다. 웬만한 집에서는 공기청정기와 의류 건조기가 필수 가전이 됐다. 고기능성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물론 옷 먼지를 제거하는 고가의 의류 건조기 등 미세먼

지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선 이 또한 그림의 떡이다. 미세먼지로 매년 수만 명이 사망에 이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마스크 하나 사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애들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율이 90%를 넘는 고기능성 마스크를 사고 싶지만 한 장에 1500원 하는 가격에 가격이 부담 돼 몇 번이나 들었다 놔다 했다"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광주 북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해 마스크 2만 개를 배부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개당 1500원을 잡더라도 2만 개 배포에 연간 예산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낭비성 예산을 줄여 얼마든지 좋은 데 쓸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미세먼지 공포에 무대책으로 방치된 취약 계층에 손을 내미는 '따뜻한 행정'이 아닐까 싶다.

無等鼓

이세들의 바둑은 세다. 2001년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천하의 이창호를 1,2국 두 판 연속 KO시킬 때, 그는 열여덟 살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지만 그야말로 '헛돌이'였다. 그러나 3국에서는 완승의 형세를 만들고도 역전패를 당했다. 졌다는 사실보다 왜 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황당해하는 이세들의 표정과 이기고도 황급히 대국장을 빠져나가는 '돌부처' 이창호의 뒷모습은 바둑계에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이세들의 '끝내기'

이세들은 이름 그대로 바둑들로 세상을 지배했다. 그가 프로에 입문한 것은 1995년, 열두 살 때다. 신인 비급도 출신 섬 소년은 과격적이고 공격적인 기풍으로 일찌감치 '이창호의 목에 방울을 달 소년'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2000년엔 바카스배에서 생애 첫 타이틀을 손에 쥐었고, 무려 32연승을 기록하며 '불패 소년'이 됐다. 그는 지금도 이때를 자신의 전성기로 꼽는다. "그때 누구도 뒤도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바둑 내용이 훌륭했죠." 이세들은 통산 50회(국내 32번, 세계 18번) 우승으로 바둑계를 평정

했지만 시련도 없지 않았다. '이단야'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2009년에는 대회 불참을 선언해 '1인자 휴식 상태'로 바둑계를 발각 뒤집어 놓기도 했다.

그는 2016년 3월 구글 인공 지능 '알파고'와 인류의 명예를 걸고 벌인 세기의 대결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5번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했지만, 4국에서 180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인류 최후의 승자'가 됐다. 이후 중국의 커제 등 많은 기사들이 '알파고'와 대결했지만 1승이라도 거둔 기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대국 후 '정말 무엇보다 바쿠지 않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1승'이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세월은 흘러 기세는 약해지고 한국 랭킹도 어느덧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급기야 이세들은 지난 5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커제와 특별 대국을 마친 후 연내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 바둑계의 사실상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들. 바둑 팬들의 아쉬움이 큰 것은 서른여섯 젊은 나이로 바둑을 접기엔 아직 뒤야할 수가 많기 때문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채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